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OBS NEWS

HOME 사회 사회일반

'수용성 3호선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 첫 발

권현 | 승인/2020.07.20 20:27

【앵커】

수원시와 용인시, 성남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의 사전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첫 발을 댔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시와 용인시, 성남시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과 관련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인시가 대표로 발주해 3억 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를 1년 동안 진행합니다.

용역에서는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수서차량기지의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3호선 연장 노선도 검토하는데 정거장 계획과 경제성 분석도 구체적으로 진행합니다.

3호선의 대안으로 새로운 철도사업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는 지난 2월 3호선 연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3개 지자체와 경기도의 첫 공동 행보입니다.

실무협의체를 매달 한 번 이상 가동해 현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성남 / 성남시 첨단교통팀장: 용인, 성남, 수원, 경기도까지 실무협의 회의를 하죠. 용

역에 대한 진척 사항이나 3개 시가 같이 협의할 사항들을 얘기하는 거죠.]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수서차량기지 이전과 3호선 연장 관련 용역은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시장 공백으로 대행체제라는 점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들은 연기나 보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서울시와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영상편집: 민병주>

권현 14060413@obs.co.kr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